주한미군 사령부에 보내는 공개서안

사람들에겐 평생 감추고 싶은 것이 한둘은 있게 마련이지만 숨기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면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의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신문을 보급하는 일을 해 온지 벌써 2년. 슬그머니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심신을 고단케 하지만 그것도 저에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기우에 불과하답니다.

이 일은 제겐 좀 특별합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외에 특수 선교(성경의 새롭고 참된 번역과 해설을 위한)에 뜻을 두고 시작했던 일과 그 일을 시작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드렸왔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옳게 번역하고 해설하여 온 세상을 향해 목숨을 바쳐 전하는 신실한 일군이 되겠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충실한 선교 활동에 대한 의식으로 신문 보급하는 일을 시작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 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특수 선교 활동에서 모든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시련 속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제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임이 틀림없지만 미군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로서 병원 생활은 그리 편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빈발하고 있는 미군차량의 교통 사고 사건에 대한 한미 행협의 불평등 조항 및 미흡함과 미성숙한 운용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불평등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협정 제23조 제 5항 (마)의 (1)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100%미군측의 잘못도 한국 정부가 25%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배상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둘째는 한국측이 1% 만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50%의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불평등은 더 더욱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낡은 조항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위는 분명히 정해져야 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조항의 지속적인 운용에 의해 미군의 역할과 지위가 신장되기는 커녕 반미 감정이 고조, 확산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관점에 근거를 두고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위의 또다른 차원의 향상을 꾀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불평등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의 시

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측은 반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 더 크고 시급한 문제점은 피해환자에 대한 치료비의 선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협의 미흡함의 문제이지만 만일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가해자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반인도적인 범죄로 규탄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론 미군측이 공무중에 가한 손해는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상이 확실합니다. 반면에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환자는 다친 몸을 추스리는 일도 감당하기조차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가해자측의 위로와 배려도 전혀 없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빚을 내어서라도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은 환자에게 치료하기 힘든 또다른 내적 상처를 주는 악질적 관행 아닐까요?

사고를 당한 피해환자는 일차적으로 배상과 보상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해자 역시 피해환자의 치료 외에 우선적인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피해환자의 생명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사건의 수사와 판결 보다 우선시 합니다. 그런데도 미군측은 기본적인 생명존중에 대한 보장장치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피해환자를 또다른 곤경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가료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무색케 하는 한미 행협의 미성숙한 운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든 미군 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보험에 들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치료비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데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한 보편적인 논리를 확신한다면 자구적인 한미행협에 얽매이지 않고 성숙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시대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미흡한 한미행협의 운용으로 말미암은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8년 6월 29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말하길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생득적 권리이며, 자유는 진보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다." 또 그는 말하길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으나 어떤 권리들은 보편적인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군측의 피해환자로서 병원 생활을 하며 한미 행협의 법리적 불평등한 인권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저에겐 뒷맛이 개운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생득적 권리로서의 모든 인간의 권리와

그가 확신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미국 정부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권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 행협의 운용에 대한 부당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한미행협을 평등하게 개정하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의하면, 신체 또는 생명의 손상을 동반한 사고와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원활한 생명의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잔인무도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민을 대표해서 주한 미군 사령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생명존중과 인권보장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깨닫고 확신한다면, 불평등한 한미행협의 운용의 구습을 깨고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십시오. 미국민의 세계적 역할과 지위를 드높이는데 공헌한다는 역사적 평가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현실적으로도 미국측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열고 평화와 평등를 사랑하는 자주적인 한국민의 정당한 요청에 성의있고 품위있게 응해주십시오. 미국민과 한국민 모두에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8년 7월 4일

과수원교회 담임목사(타레마타 선교센터 원장) 이 영 선 올림

후원기관 및 단체

Received by [illegible]

*추신: 회신과 함께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